보도자료

대한민국 서울, — 2023년 1월 26일

다쏘시스템, IBM과 버추얼 트윈 기술을 활용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가속화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장기 파트너들과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협력을 확대**
-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 IBM의 자산 관리, IoT 플랫폼 및 환경 인텔리전스 제품군을 결합하여 자산 현대화, 운영 최적화 및 지속 가능성 결과 가속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통찰력과 솔루션 제공**
-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에너지, 소재 및 데이터 센터 산업을 강화**

다쏘시스템 (www.3ds.com/ko)과 IBM은 지난 19일, 자산 집약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을 결합하는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협력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2022년 에너지 및 자원 CEO의 58%가 지속가능성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으며, 이 중 51%는 이를 성장을 견인할 비즈니스 기회로 고려했다. 또한 CEO의 44%가 데이터 통찰력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출처: IBV 2022 CEO - 에너지 및 리소스 인사이트)

오늘날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 운영 중단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정학적 상황, 고령화된 노동력,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한 여러 요인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자산 운영을 최적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행 가능한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능력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자산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하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쏘시스템과 IBM은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를 IBM의 자산 관리, 리소스 최적화, 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거버넌스 솔루션과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컨설팅 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기존 자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그리드, 풍력 발전소, 공항, 물 분배 시스템, 운송 및 이동성, 도시 및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

자산의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는 데이터가 풍부하고 진화하는 3D 모델로, 과학적 정확성으로 현실을 복제하여 물리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자산의 성능을 가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장비, 인프라, 가치 네트워크 및 영역에 대해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를 기상학적 및 친환경 IT 데이터 최적화 솔루션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조 및 운영 팀 간의 협업 및 지식 공유를 개선
- 자산, 인력 및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결정
-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산업 및 환경 규정과 관련된 규정 준수 고려사항을 통합

앞으로 몇 달 간, 다쏘시스템과 IBM은 공동 제공 세부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우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물/에너지 유통 및 에너지 전송 사업자, 풍력발전 사업자, 공항, IT 인프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민간 인프라 시장에서 이러한 협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데이터 센터 운영 중에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최적화
- 자산 상태 및 유지관리 정보와 글로벌 기상 및 예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항 운영 개선
-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결합하여 풍력 발전소의 물리적 자산 배치를 개선
- 송전, 급수 및 위생을 포함한 유틸리티 운영 및 리노베이션 최적화

안나 폴라 드 지져스 아씨(Ana Paula de Jesus Assis) IBM EMEA의 회장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급 비즈니스 파트너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쏘시스템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버추얼 트윈으로 실제 데이터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특히 자산 집약적인 산업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언급하며 "IBM은 우리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30년의 넷제로(Net-Zero) 야심은 우리의 약속을 확증한다. 당사는 파트너 생태계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서비스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랑스 베르제랑 Florence Verzelen) 다쏘시스템 산업, 마케팅 및 지속가능성 담당 수석 부사장은 "IBM은 오랫동안 다쏘시스템의 파트너였으며, 우리는 산업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좋은 파트너쉽을 구축했다. 이 다음 단계는 고객이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우선 과제인 분야에서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IBM의 지속가능성 소프트웨어와 전문 지식을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 및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와 결합하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순환 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3D 설계 소프트웨어, 3D 디지털 목업 (DMU)과 제품 PLM 솔루션: https://www.3ds.com/ko/

다쏘시스템코리아 소셜채널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3D 가상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2만 명의 직원이 140여 개국에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30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3d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M에 대하여

IBM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컨설팅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급업체이다. 175개국 이상의 고객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 서비스, 통신 및 의료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 영역에 있는 4,000개 이상의 정부 및 기업 기관이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와 Red Hat OpenShift를 사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한다.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산업별 클라우드 솔루션 및 컨설팅 분야에서 IBM의 성공적인 혁신은 고객에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옵션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신뢰, 투명성, 책임, 포괄성 및 서비스에 대한 IBM의 전설적인 헌신에 의해 뒷받침된다. 더 많은 정보는 www.ib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정지민 대표 / PR & Communications 매니저

jeemin.jeong@3ds.com

앨리슨파트너스

김상훈 대리 / Senior Account Executive

patrick.kim@allisonpr.com